

한국사서술의 주류적 사관 새롭게 조명

李基白 외 지음 「現代韓國史學과 史觀」

趙東杰

국민대 교수 · 한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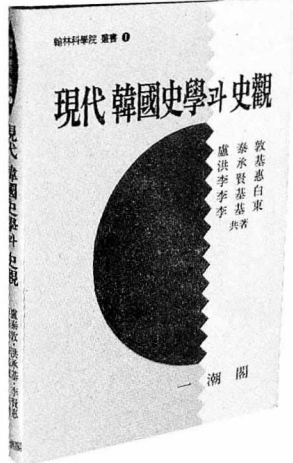
8·15에서 오늘까지 과란만장한 사회변천에 못지않게 우리 역사학도 다양하게 변천하였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 역사학 또는 학계의 동향에 대하여 금번에 翰林科學院에서 정리·분석하여 「現代韓國史學과 史觀」을 펴냈다. 내용에 앞서 싫어서 기피하고 어려워 기피하던 그동안의 歷史學과 史觀의 논의를 일단 정리함으로써 연적한 과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 방면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반길 일이다.

내용을 보면 공동작업으로 선정한 5개의 주제를 5인의 학자가 서로의 영역을 조절하면서 각자의 관점을 살려 특색있게 논술하고 있다. 5개의 주제는 한국사 서술의 주류로 본 民族主義史學論(盧泰敦), 實證史學論(洪承基), 進化論的 敘述(李賢惠), 唯物史觀論(李基白), 民衆史學論(李基東)인데 우리 학계의 학풍을 대변하고 있는 유형을 적절하게 선정하였다. 단지 진화론의 문제가 선정된 것은 연구진이 고대사 이전 시기의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대사 연구 경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나 우리가 주목해줘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유물사관론 · 민중사학론

盧교수의 民族主義史學論은 8·15후의 新民族主義史學을 비롯하여 그 후의 역사학에서 식민사학을 극복하면서 민주주의 또는 자유의 발전논리, 분단극복의 논리, 민중적 민족주의의 논리 등이 각각 역사서술에 반영된 점을 분석한 내용인데 그동안 산만하게 발표된 사론들을 종합·정리하고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현대사학사 서술의 길잡이로서 공헌할 것이다. 단지 식민주의사학이라는 용어처럼 개념이 모호한 점이 군데군데 발견되는 것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聯合性 新民主主義에 대하여 과제로 남겨 두었는데 그것은 당시에 역사서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洪교수의 實證史學論은 지금까지 발표된 실증사학에 관한 논저들을 총정리하고 새롭게 사학사와 학설사의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명쾌하게 논단한 내용이다. 그런데 實證史學과 實證主義史學을 상세히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다른 분은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 실증사학의 발생사적 논의에서 8·15후의 것이 1930년대의 것과 다른 성



격이 규명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뒤따랐다. 30년대 실증사학은 식민사학과 관계는 고사하고라도 당시 역사학의 독무대와 같은 민족주의사학에 이어 유물론사학이 본격적으로 대두하여 서로 대립하자 사관에 앞서 고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일어나 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8·15후에는 과연 어떤 요구가 급박했기에 고증에 머물러야 했고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든가 하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李賢惠교수의 進化論의 문제는 구한말 이래의 계몽주의 역사서술과 현재 고대사 서술에 적용된 신진화론의 문제로 나누어 논술한 것으로 이 방면에 관심을 이끈 공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런데 구한말의 社會進化論은 제국주의 논리의 성격을 가지고 전파된 것과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지만 新進化論의 모태인 인류학의 성격과 그 위치가 고려된 논의가 있으면 한다.

민중주의사학론 · 실증사학론 · 진화론

李基白교수의 唯物史觀論은 오랫동안 금기되어 오던 이 방면의 논저를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학계의 안목을 크게 넓혔고 또 몇가지 오해도 바로잡아 놓았다. 그런데 유물사관 수용문제에 역점을 두다보니 다른 논문과 달리 8·15이전 문제를 길게 논술하면서 1930년대의 民族主義史學과 唯物論史學과 實證史學의 삼각관계를 추적 분석하고 그뒤에 8·15후의 유물론사학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그것은 삼각관계의 이해에 민족주의사학과 유물론사학이 가깝다는(洪以燮) 오관의 여과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실증

민중주의사학론 실증사학론 진화론적

서술 유물사관론 민중사학론 등 한국사

서술의 주류를 이뤘은 5개의 주제를

5명의 학자가 분담집필한 이 책은,

내용에 앞서 싫어서 기피하고 어려워

기피했던 기왕의 이 방면 논의들을 한

차원 높게 정리함으로써 산적한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사학의 역할론 같은 부분이 장황해진 느낌이 남는다. 그리고 오해의 문제도 식민사학과 반식민사학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鄭寅普 · 白南雲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학문관계까지 연장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먼저 제시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한다.

李基東교수의 民衆史學論은 1980년대에 고양된 역사학계의 민중사학 또는 역사서술의 민중적 시각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자 하는 기성 역사학계의” 관점에서 그 변천과 유형별 성격을 명문장으로 정리한 후 준엄하게 비판하고 또 문제를 제기한, 필연 학계에서 화제를 일으킬 내용이다. 그런데 民衆의 개념도 階級聯合이나, 通史의 이나, 近代의 개념이나는 등 아직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또 民衆史學도 民衆史觀 · 民衆的 民族主義史觀 · 總體史觀으로서의 민중적 관심이나는 등 이론 모색을 위한 탐색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폭력혁명의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식의 논단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 한동안의 역사서술이 세계사는 제국주의 중심으로, 한국사는 지배자 중심으로 서술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관이나 시각일지라도 ‘민’의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 과제 해결을 시도하다 보면 여러가지 논의 중에서 마르크시즘도, 신마르크시즘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런 문제는 포용적 자세의 비판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민중의 대두 성장과 관련한 근대화의 논의에서도 공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본말 주종의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논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

는 것이다. 특히 유신체제가 민주화의 역량을 잉태했다는 식의 시각은 일제식민통치가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는 제국주의 옹호론과도 상통한 논리가 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어쨌든 민중사학측이 정부의 촉진계기로 삼아야 할 논술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을 것이다.

남는 문제들

이상의 평론은 논자들의 노고에 비하면 지엽적인 것일 수 있다. 이 기회에 우리의 사학사를 정리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획 문제를 제기해 두기로 한다. 우리의 근현대사학을 분류할 때 흔히 민족주의를 기준해서만 논의해 왔는데, 그것은 식민지 현실이나 분단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민족주의도 어떤 역사방법론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했든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일제 때의 民族史學의 경우를 보면 民族主義史學은 唯心論(觀念論)史學 · 文化史學 · 歷史主義 經濟史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술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학사 분석의 기획도 민족주의사학을 일단 한 몫으로 놓고 그 외는 학풍에 따라 선택 배열해 보는 방식에만 얽매지 말고 역사방법론 또는 사관을 기준하여 분류하는 기획 방법도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방법을 적용하다 보면 관념사관 · 경제사관 · 실증사학 등의 명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념사관은 유심론사학과 문화사학으로, 경제사관은 유물론사학과 역사주의 경제사학으로 나뉘어질 것이고, 그 외에도 유형에 따라 다른 명칭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한 후에 어느 것이 민족주의적이었던가의 여부도 따지고 아니면 어떤 성격으로 파악해야 하느냐의 방식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이 책의 序文을 보니 중간 검토 과정에서 동서양사 전공자까지 참여하여 폭넓은 토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평자의 의견 같은 것도 검토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우리의 사학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담당한 심정을 감출 수 없어 부언해 두는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복잡하게 발표된 사론들을 여러모로 분석하여 정리함으로써 해묵은 과제를 일단 해결한 「現代韓國史學과 史觀」의 출간을 축하하면서 이를 담당한 翰林科學院과 집필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潮閣 / A5신 / 212면 / 7000원